대설·한파 신속 대응 총력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긴급 대응… 제설작업 행정력 집중

임실군이 지난 7일부터 이어지는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등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9일 임실군에 따르면 전날(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소집하고 제설작업에 가용 행정력을 모두 집중했다.

임실군에는 지난 6일부터 9일 오전까지 평균 적설량이 6.9㎝로 집계됐다.

군은 대설 예비특보가 나온 전날 오후 4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으며, 미리 준비한 제설 장비 81대와 제설재 등 자재 70톤을 동원해 303개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임실군이 신속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운암 국사봉로, 임실읍 수정교 등 얼어붙은 주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해 출근길 교통 혼잡을 예방했으며,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광판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군은 이어지는 한파 속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한 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한랭 질환자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는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파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빈곤 거주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요청하는 경우 한파 응급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대설로 인한 도로 결빙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한파로 인한 재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기록적 폭설 속 신속·체계적 제설 대응으로 군민 안전 확보

순창군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발 빠른 제설 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적설량이 25.7㎝를 기록한 가운데, 군은 275개 노선 584.2㎞에 달하는 관내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군은 폭설 예보가 발표되자마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제설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제설작업을 개시하여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93대의 제설 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의 제설작업을 60분 이내에 완료하는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번 제설작업에는 군청 공무원과 운전원 등 총 11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장비는 15톤 덤프트럭 6대, 5톤 덤프트럭 1대, 1톤 트럭 2대, 굴삭기 1대, 트랙터 83대 등 다양한 제설장비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제설작업은 체계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교통량이 많은 2차선 주요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서 마을 진입로 및 이면도로 대한 제설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327.9㎞에 대해서도 꼼꼼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폭설에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CCTV,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적설량과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설작업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겨울철 폭설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대응으로 군민들이 겨울철 폭설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향후에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강설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세계 절지동물 특별기획전 개최

남원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자연의 소중한 가치와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세계 절지동물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지구에 현존하는 동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절지동물'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은 세계 각국 다양한 환경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절지동물 생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 2월 23일까지 운영한다.

특별기획전은 살아있는 형광 전갈을 경험할 수 있는 '반짝반짝 야광 동굴'과 털북숭이 타란튤라와 무시무시한 지네 등이 있는 '고요한 밤의 사냥꾼', 물속 청소대장 블루얍비 가재와 CRS 새우 등의 갑각류가 전시되어 있는 '해안가 집게 왕국', 세계 희귀 곤충 표본과 살아있는 국내 곤충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숲속 곤충 친구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네인 기간티아 왕지네',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사막의 사냥꾼 '낙타거미' 등 50여 종 1,000여 마리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절지동물의 생생한 모습과 남원 지리산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장수풍뎅이, 대벌레, 상재홍단딱정벌레 등 백두대간 속 곤충도 볼 수 있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너프건 사격 게임', 매끈하고 보송한 장수풍뎅이 애벌레, 슈퍼 밀웜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 생태 체험존', 아이들이 퀴즈를 통해 절지동물의 생태를 알아가 보는 '스탬프 미션 탐험', 거대한 거미와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거미둥지 포토존' 등 절지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즐길 거리도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표 '5대 맛집' 선정

그랑깨·집밥 담다·두에식당·명문제과·정옥추어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남원의 맛(가칭) 공모전 (WWW.남원의맛.com)을 개최하고 남원을 대표하는 5대 맛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률적인 업소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의 맛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과 BI,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업소 중 최고 남원의 맛집을 찾는 영상 공모전까지 국민참여형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기획해 진행, 공모전에는 203건이 접수, △남원미식 △남원미락 △자연이 빚은 남원의 맛 3가지를 활용한 BI공모전 개최결과 최종 '남원미식'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남원미식 BI는 남원의 상징인 광한루와 남원만의 풍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릇에 담아 상징화한 것으로 향후 남원미식 지정판 및 테이블 페이퍼, 앞치마 등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상공모전은 한국관광공사(티맵 내비게이션 데이터, 음식점 검색 순위)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음식점 23개소를 대상으로 '남원의 맛 홍보' 영상을 접수받아 최종 선정, 5대 맛집은 △그랑깨(돈가스) △집밥 담다(한식) △두에식당(오징어 볶음) △명문제과(제과 제빵) △정옥추어탕(추어탕) 등이다.

남원시는 '남원의 맛' 홍보 영상의 참여를 위해 공모전 전문사이트 홍보 및 전국대학교는 물론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모전 참여를 유도했으며 영상공모전 개최를 알리는 숏폼 영상을 제작, 남원시TV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남원시는 영상공모전 접수 빈도(30%)와 맛 평가(70%)를 거쳐 최종 '그랑깨, 집밥 담다, 두레식당, 명문제과, 정옥추어탕' 5개소를 남원을 대표하는 맛집 '남원미식'으로 선정, 남원시는 선정된 5개소 메뉴 등을 남원시 미식관광 기반 마련을 위하여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며, 첫걸음으로 최근 인기 유튜버(흥삼이네)를 통한 맛집투어 컨셉 브이로그와 먹방을 촬영한 바 오는 1월 10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원시는 5대 맛집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는 바이럴 영상물을 제작하여 남원시 공식 SNS, 유튜브 채널 등에 홍보하고, 남원맛집, 남원여행, 남원관광 등 인터넷 검색 시 5대 맛집이 상위 노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선정된 5대 맛집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미식관광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구 유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감마켓' 14일 개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서덕교)는 오는 14일, 남원시청 1층 로비에서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감마켓'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14개소가 참여하며 우수한 품질에 가치를 더한 50여종의 선물세트가 홍보 시식 및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협동조합 비니루없는점빵이 기획한 플라스틱 대체 생활용품 에코트래블세트 3종이 출시되어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선물 세트 주문 접수는 오는 1월 17일까지이고 택배 마감은 1월 21일이다.

관련 문의는 전화(063-620-5637)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노인의치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실시,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관할 보건지소,보건진료소,면사무소에,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개인별 1차 검진과 의치 사용법 등 교육을 시행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 시술을 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구강보건실(620-797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군내버스 활용 금연 홍보 박차

임실군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군내버스를 활용한 '금연' 광고를 시작해 금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보 내용은 버스 외부 측면에 '금연! 가족 행복의 시작!',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등의 금연 홍보와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 클리닉 이용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금연 버스 광고는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는 버스에 금연 홍보문을 부착해 시각적 홍보 효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복,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금연 욕구 향상 및 금연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군은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내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버스를 활용한 금연 광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금연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